"부처님 생신 축하드려요"

서울 불광사 연꽃법회 어린이들, 봉축법요식 율동준비 '구슬땀'

지난 6일 부처님오신날을 3주 앞둔 서울 불광사 교육원에는 봄 축기운이 물씬 했다. 한복을 입고 사랑을 누리는 봉축 연화단 때문이다. 어린 어린이법화와 청년법회 소속 율동단은 19일 동국대 운동장에서 열리는 봉축법요식에서 선보일 공연을 2주 앞두고 사랑 신도들에게 공개했다.

3층 강의실 무대에 고운 빛깔 한복을 예쁘게 차려입은 아이들이 등장했다. 보기만 해도 귀여운 아이들에게 기대에 찬 어른들의 시선이 모아졌다.

아이들 표창에는 진장한 기세이 어린이다. 드디어 올 해 연등회 어린이 율동단이었 '꼬마대장' 의 전주가 시작했다. 발을 구르고 손뼉을 치며 신나는 분장을 보여준다. 아이들이 즉시 동작을 외우더라을 주다 대 일일 지나 없는 지도교사는 손짓을 동시도 맨추지 않았다.

불광사 연꽃법회 어린이 율동단은 매년 열리는 부처님오신날 연등회에 참가해 법요식에 음스낙과 불자사물에 즐거움을 선사했다. "연등회 제등행렬 때문 예쁜게 한복을 고고 깜짝한 불등등 보여주는 덕분에 가자들의 불태가기 뜨아진다다" 지도법사 혈영스님은 자랑했다.

율동단은 200대중으로 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다양하다. 올 해 회연소 참가자는 네 살 최고령은 초등학교 6학년이다. 이들은 지난 3월말부터 매주 일요법회 후 모여 한 시간씩 연습해서 동작을 익혔다. 불교대조대에이선법회에서 지정한 과과 안무를 기본으로 하되, 아이들 역량에 맞춰 조금씩 변경하기도 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율동단에 참여한다는 연꽃법회 회장 김선이(13) 어린이는 "부처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 열리고 법회 때마다 율동을 배운다"며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친구들과 동생들이 함께 해 재미있다"고 말했다.

두 달 동안 아이들에게 율동을 지도해온 장지해 씨는 "그만큼 어이들이 지학년들을 돌보면서 연습하는 걸 보면 기특하다"며 "첫전 공연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남은 시간 동안 열심히 지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꽃법회 율동단은 13일 마지막 연습을 마치고 오는 19일 동국대운동장에서 있을 봉축법요식 시 식전행사 제 두 달간 연습한 율동을 보여줄 계획이다.

어현경 기자 eomsin@buddgo.com

서울 불광사 봉축 연화단 율동 연습 모습.

매년 7대 종단 수장들이 지난 5일 광화문광장에서 '이웃종교 화합주간' 개막을 선포하고 현드포전한등을 가졌다.

"어린이에게 희망주는 종교되자"

5일 7대 종단 수장 '이웃종교 화합주간' 선포

국내 7대 종단 수장들이 지난 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종교간 화합과 협력을 다지는 '이웃종교 화합주간(World Interfaith Harmony Week)' 에 지향 적으로 참여하는 행사도,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적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날 행사는 총무원장 조계사를 비롯한 7대 종단 지도자들이 개막 선언과 더불어 어린이날을 맞아 관광문광장을 찾는 시민들을 위한 축하공연, 체험학습 등으로 진행됐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어린 행사가 열린 타이라는 종교를 떠나보고 함께 동참하는 프로그램이 됐으면 한다"며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종교가 되도록 하자"고 밝혔다. 김희중 대주교도 "이웃종교 화합주간 을 통해 종교간 화합의 모범적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도 축사를 통해 "7대 종교 지도자들의 노력으로 평화가 들꽃처럼 전국에 퍼지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서면으로 축하메시지를 보내왔다. 반 총장은 "종교지도자들께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신데 대해 지대스럽게 생각하며 세계적 큰 모범을 보여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7대 종단 지도자들은 랜드 브리핑과 시민들을 위한 사인회도 가졌다. 또 시흥 봉선사 어린이들의 율동과 지역상에 봉산사들의 북 공연도 펼쳐졌다. 명사예는 송석구 사회통합위원회 위원장 등 1000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청년이 행사가 진행되는 내내 '오직 예수' 라는 문구를 넣은 피켓시위를 벌여 논살을 빚무리게 했다.

홍다영 기자 hong@buddgo.com

노래 가락 따라 웃음꽃 '활짝'

조계사와 함께하는 어르신 축제 개최

"절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은 월심 괜찮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덕분에 카네이션과 선물도 받고 노래도 모두 즐겁고 하루가 참 것 같다 좋습니다."

지난 7일 서울 조계사에서 만난 송부섭(70세, 서울 용산) 씨의 말이다. 어려이날을 라루 앞둔 지난 7일 조계사 경내에서는 효자손 축제가 열렸다. 사울 조계사가 주최하고 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정원스님)와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스님)이 주관한 '조계사와 함께하는 어르신 축제' (사진)가 바로 그것. "365일 당신이 최고" 를 주제로 3000여 명이 참석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서울노인복지센터 정노예봉공연 봉사단과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상상 밴드의 합이으로 문을 연 축제는 불자 개그맨으로 잘 알려진 이수근 씨의 사회로 서울 덕원에고 무용과 학생들의 공연과 가수 김진디, 주병선 씨의 축하공연, 상대며 한오현무용 단의 전통무용 공연이 이어지면서 즐겁게 흘러갔다.

평소 영불소리만이 가득했던 고요한 사찰에 "꽃백장복" 선사는 노래 소절가 울려지자 오색 연등 아래에서 축제를 지켜보던 노인들의 어깨가 절로 들썩이기 시작했다. 얼굴에도 환한 웃음꽃이 피었다. 축제 모습을 카메라에 생생하게 담아 가족에는 이들부터 서로서로 손을 잡고 박수를 추며 즐겨움을 표하는 이들, 수줍은 듯 박수를 보내며 즐겨 위하는 이들까지 축제를 즐기는 모습은 라장자에이었지만 조우한 마음만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자신들을 위한 축제를 마련해 준 불교에 대한 고마움도 하나였다.

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 정원스님은 "아마이에 대한 공경과 감사의 마음은 365일 매일 전달해도 모자란다"면서 "이런 행사를 통해 참석하신 모든 스승들이 마음에 따뜻한 감동과 뜻깊은 추억이 남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심태규 기자

종각역서 카네이션 꽃공양

대한불청, 어버이날 행사

대한불교청년회(중앙회장 정우시)와 서울대트로가 어버이날을 기념해 카네이션을 달아 드리는 행사를 열었다. 대불청은 지난 7일 지하철 1호선 종각역에서 '어린시 자공 꽃 달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행사를 열었다.

이날 청년회원과 여무원 100명 은 오전10시부터 약 1시간 반 동안 2000송이의 카네이션을 지하철 이용 어린신들에게 달아드리며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조계사 다도회 회원들도 한쪽 부스에서 전통차를 우려 서 차를 대접했다.

박상세 종각역장은 "오래오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라는 뜻에서 청년회와 공동으로 행사를 마련하게 됐다"며 "갑수록 메말라가고 있는 요 정신을 달래기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우시 중앙회장도 "어린시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청년회원들이 앞장서 '효 사랑' 실천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번 카네이션 달아 드리기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이며, 앞으로 매년 계속해 예정이다. 홍다영 기자

김기용 경찰청장, 총무원 예방

자승스님, 봉축행사 지원 요청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김기용 신임 경찰청장(사진)에게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 지원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8일 취임인사차 한국불교연사문화기관을 찾은 김기용 경찰청장은 "경찰이 매년 부처님오신날 행사에 목격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안다"며 "올해도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연등행렬 교통통제에 함께 무엇보다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경찰이 신경 써달라"고 덧붙였다.

부처님오신날 당일 예상되는 불전함 절도사건에 관심을 기울임과 는 당부도 전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경찰과 국민신문 회복을 염원하는 봉축등 보시금을 조계사에 전달했다.

사진 신재호 기자

장영섭 기자 kant@buddgo.com

"나누며 즐기는 어린이날"

'불여사' '길벗' 보육원 방문

인터넷 신앙단체인 '불교와여행 을사랑하는사람들' 과 사단법인 길벗은 지난 6일 안산에 위치한 보육원 등 '도지정소년의집' 을 찾아 새욕대원을 개최했다. 해학대회는 50여명의 봄사자가 참여한 가운데 마술 쇼, 제기차기, 페구 등 게임과 다양한 먹거리 나눔행사로 진행됐다.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행스님은 "매년 설지 않고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해 주는 봄사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며 "특히 식수난 해결을 위한 공사금을 후원해 준데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안칙수 기자